

제6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할빈원동이공학원	성명	형매연	학년	4	생년월일	1988년 9월 8일
----	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

말한마디에 천냥빛도 갖는다
속담을 배울 때 그 중의 값은 뜻과
감아 있논 지혜에 대하여 감탄할 수
밖에 없다. 속담은 긴 세월이 흘러가
면 서선인들이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
짧고 짧끔한 단어로 그 뜻을 표현하
말이다. 하여 속담은 인간 의 생활에서
존재하는 도리를 잘 나타내는 법이다.
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접하게
일도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개인적
공간을 가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
원이 되었다.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
다. 개인적인 공간은 필요하지만
교류와 서로의 접촉이 매우 중요한 것
은 사실이다. 그러고 보면 사회의 인
관계에서 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
고 있논 것이다. 말은 마음부터
지성각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서로
유쾌할 수 있논 중요한 매체이다. 사
들은 서로 말로 오고가는 때, 말은
무형한 도구라서 그 것을 중요시
한다. 그래서 ‘가는 말이 고와야
말이 곱다’라는 말이 대한 속담도
이 있논 법이다. 사회 문명의 발달은

100

200

300

400

500

제6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할빈원동이공학원	성명	형매연	학년	4	생년월일	1988년 9월 8일
----	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

과 확
기 술
이 나
의 확
기 술
의 발
달 이
아

나
인
간 의
의 식
이 라
고 생
각 한
다. 그
의

식
을
서
로 표
류 하
고 서
로 배
우 면
서 사

회
가 오
늘 난
개 지
백 달
한 것
이 다.
이
긴

시
간 을
거
쳐 속
담 은
인
간 의
사
고 방
식

일
하
는 방
법 등
에 대
해 자
신 의
중
요 한

역
활 을
해
운
것
이
다. 그
리
고 말
에
대

한
속
담 도
우
리
여
기
는 정
말 정
신 적
인

재
부
가 되
기
도 한
다.

말
한
한
마
더
로 천
냥
빛
을
갖
는
다
고

말
한
한
마
더
여
경
말
천
냥
빛
도
갖
을

수
있
을
까
? 속
담 은
속
담 이
지
만 나
는

이
말
은
정
말
로 의
심
한
적
이
있
다. 하

지
만
경
고
나
후
,
나
는
이
말
을
새
롭

게
,
세
심
하
게
알
게
되
었
다. 매
항
포
일
하

년
때
의
일
이
었
다. 천
구
의
컴
퓨터
로
게

임
을
아
주
선
나
게
하
다
가
컴
퓨터
가
갑

자
기
자
동
으
로
클
어
버
린
것
이
었
다. 컴

퓨터
가
너
무
많
이
사
용
되
어
서
고
장
이

난
것
이
다. 나
는
시
낫
던
기
분
이
확
다

떨
어
지
고
,
천
구
한
때
미
안
하
는
마
음
뿐

이
었
다. 그
래
서
나
는
‘미
안
하
다
천
구
야.’

이
말
을
하
고
수
리
비
를
주
었
더
니
천
구
가

‘
편
들
아
,
수
리
비
는
내
가
내
면
되
.’
과
고

한
것
이
다. 나
는
이
상
하
게
생
각
할
수

제6회 어문연구학회 학술대회

학년	4	생년월일	1988년 9월 8일
성명	정미연		
주요 활동이공학역	학비 활동이공학역		
학급			

밖	여		없	었	다.	컴	퓨	터	가		나		때	문	예		고	장	
이	난		사	실	인		데	,	수	리	비	는		내	가		내	는	
것	이		손	리	가		맞	다	고		생	각	했	다.		친	구	에	게
생	각	은		말	했	더	니	,	'	너	가		미	안	하	고		했	을
때		나는		전	성	을			느	꼈	다.		라	고		하	여		못
	음	을		지	었	다.		친	구	의		말	을		들	고	나는		
더		이상		할		말	이		없	어	졌	다.		그		때		나	
는		친	구	의		없	은		마	음	으	로		나의		전	성	을	
알	아		준		것이		참	으	로		기	뻘	다.						
	세	월	이		참		빠	르	게		는		감	작	할		사	이	에
나는			4	학	년	이		되	었	고		곧		졸	업	생	이	되	
었다	.		친	구	들	은		모	두		논	문	을		쓰	려	고	아	
주		진	장	스	럽	고		잘		쓰	려	고		노	력	하	는	모	
습	을		보	고		나는		친	구	를		도	와	서		같이			
의	논		해	던		중	이	었	다.		어	떤		친	구	가	와	서	
나의		논	문	을		좀		참	고		하	고		잘	다	고		해	
서		나는		컴	퓨	터	에	서		논	문	을		보	여		주	었	
다	.	나는		다른		친	구	와		의	논	을		하	고		있		
었	는		데	,	그		친	구	가		컴	퓨	터	만		보	고		을
고		있	었	다.		나는		'	갑	자	기		왜		물	어	?'	라	
고		물	었	더	니	,	그		친	구	가		날	보	고		'	정	말
미	안	해	...	'	라고		말	도		잘		하	지		못	했	다		
나는		안	줄	은		느	낌	이		들	어	서		컴	퓨	터	를		
점	씩	쳐		냈	더	니		친	구	가		버	튼	을		잘		못	
누	엇	기		때	문	예		두		말		동	안		시	간	을		걸

자본의 법칙

학점	한글 원동기 공작원	성명	정미연	학년	4	생년월일	1988년 9월 8일
----	---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

리고 겨우 완성이 된 내 논문은 다 삭제
 버린 것이었다. 나는 그때 화가 만
 차다 하고 하면 정말 거짓말이다. 하지만
 친구의 '미안하다'는 말을 듣고 너무 나
 후회스러운 논문을 보고 나는 '괜찮아,
 내 머리가 좋아서 걱정할 것 없다. 다들 졸업은
 시 쓰면 되'라고 했다. 다들 졸업을
 앞두고 논문은 언제든 스타레스 받고
 편 논문은 원성하기가 아주 어렵다는
 것을 친구가 어떻게 모를까 나는 생각
 때 물어 나는 친구의 마음을 해라 했기
 때 물어 친구에게 팬클럽이라고 말한 것이
 다. 무엇보다 나는 친구의 진심을 느껴
 것 같다. 그때 나는 말한 마다 예전
 낭벨도 같은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
 고 그 뜻을 피부로 느꼈다.
 무슨일이 있어도 진심을 가져야 한
 다. 이렇게 해야 진심을 전달할 수
 있다. 그리고 진심을 느끼는 것이다. 열
 마나 간 단란 말이라도 진심만 가지면
 정말로 마다 예전 낭벨을 같은 법이
 다.